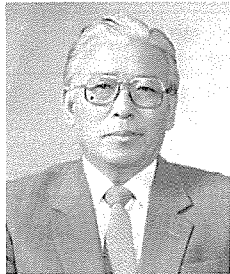


## 삼림은 생명의 원천임을 인식해야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가치관 확산절실



朴泰植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명예교수)

### 삼림은 교육·과학적 용어

산을 가리키는 말로 산림(山林)과 삼림(森林)의 두가지를 쓰고 있다. 산림은 법률적, 행정적 용어로 통하고 있고, 삼림은 교육적, 과학적 용어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어의 사용대상에 따라 산에 대한 해석의ニュ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산림은 나무가 있건 없건 법률적으로 또는 학문상에 산으로 되어 있는 곳을 지칭하며 삼림은 현실적으로 임지에 나무가 서 있는 곳을 뜻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의 제목이 삼림(森林)과 인간문화(人間文化)이므로 살아 있는 수풀과 인간문화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인간문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인간문

화라는 말을 우리 인류가 발전시키고 누적해 놓은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성과를 뜻한다고 할 때, 삼림과 인간문화의 내용은 광범위해진다. 즉 삼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기타 임산물을 이용하여 의·식·주(衣食住)에 남긴 발전 성과를 비롯해서 수풀에 대한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적 영역에 걸친 물질양면의 성과와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여러 영역의 문화가 발전된 사회를 문명사회라 하는데 삼림에 관한 문화가 발달된 나라를 임업선진국이라 한다. 필자는 표제의 삼림과 인간문화의 내용을 살아 있는 수풀과 인간과 맺어진 정신적 성과에 국한해서 논하고자 한다. 흔히 삼림과 문화를 논할 때 목재를 이용한 목기공예(木器工藝)가 인류

에 남긴 성과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삼림이 인류생활에 주는 혜택의 내용과 성과를 취급하고 있으나 삼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건설성도 삼림에 대한 정신적 성과의 일부이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분야이다.

요즘에는 문화라는 말은 그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당위적 사고, 태도, 행위 등을 총괄해서 일컫는 경우를 흔히 본다. 예컨대 운전문화가 좋지 않다든가, 심지어는 데모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따위의 표현이다. 필자가 표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삼림에 대한 인간의 문화, 즉 삼림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할 당위적인 사고, 가치관, 태도, 행위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하고자 한다.

### 삼림은 원시 인류생활 근거지

삼림과 인간과의 관계 발전을 보면 고대에 있어서는 삼림은 원시 인류의 생활 근거지였으며 먹을 것을 얻는 곳이었으나 점차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농경지, 방목지를 확보하고 교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림은 인류생활에 방해가 되어 삼림을 파괴함으로써 생활환경을 넓혀갔다. 인류생활의 발달은 강이 있는 유역에 따라 삼림을 파괴하며 이루어졌다. 중세 이후 수공업의 발달과 근세의 도자기, 제철 등의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열원으로 많은 목재를 쓰게 되어 삼림은 황폐되어 갔다.

18세기 후엽에서 19세기에 걸친 산업의 발달로 목재는 연료와 원료로 많이 쓰여지게 되어 삼림의 파괴는 더욱 심해져서 목재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들어와서 목재

는 무한한 것이 아니고 잘 가꾸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임학(林學)이 발전하게 된다. 이때부터 삼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삼림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학문과 실천을 발전시킨 나라는 현재 입업선진국이 되었다.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이러한 나라에 속하고, 그리이스같은 나라는 옛날에는 훌륭한 문화를 가졌으나 삼림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옛날의 영광이 퇴색하였다. 삼림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국토가 사막화되고 옛날의 문화의 발상지가 오늘날 후진국으로 전락한 예를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삼림을 울창하도록 잘 다스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후적 조건, 토양과 수분조건, 기술, 재정지원 등 여러 여건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사고, 가치관, 태도, 행위 등)의 건전성이다. 삼림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중요하다. 삼림은 맑은 공기, 맑은 물, 국토보존,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마련해 준다. 녹색은 인류생활의 근원이 된다. 녹색은 태양에 에너지를 이용하는 동화작용의 원천이며 녹색은 의·식·주의 근원이다. 녹색은 피곤을 덜어주고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요즘 환경보존을 외치며 녹색의 감소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세계환경개발회의) 이후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즉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생물의 다양성 유지, 기후변화 방지, 사막화 방지 등의 협약에는 모두 삼림의 감소를 방지하고 삼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경영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다.

### 해충구제위한 농약살포 안해

선진입업국인 독일에서는 삼림을 목재라고 하는 경제재만을 생산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재생산에 대한 투자효과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1979년 독일 영림서를 시찰했을 때 목재생산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던 바, 목재생산의 투자효과는 1~2% 정도였는데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민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림은 목재생산 뿐만 아니라 수원함양, 토양보존, 야생동물 보존, 아름다운 환경유지, 야외휴양 등의 공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목재생산이나 기타 입산물 생산의 경제효과를 수치적으로 따질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삼림에 해충이 발생하여도 생물학적 방법으로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고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 농약을 뿌리면 그것이 흘러내려 시냇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들 경우가 많다. 또 야생동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먹이 식물을 삼림 내에 심기도 하고 새로 심은 나무의 순을 야생동물이 잘라먹지 못하도록 나무심은 주위에 철망을 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게 먹힌다.

이러한 과외의 비용이 많이 들므로 목재생산의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다. 투자수익률이 1%가 안되어도 국민들은 불평이 없다. 삼림은 생명의 원천이요, 생활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삼림조성과 삼림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기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낸다. 독일에서는 국유림, 사유림을 막론

하고 어떤 삼림에서도 정해진 코스로 입산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까지는 자동차로 가지만 삼림 내에는 길이 잘 닦아져 있어도 걸어가야 한다. 삼림을 다스리는 삼림관만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삼림 내의 자동차진입이 허용되는데 반드시 삼림관의 제복을 입었을 때에 한한다. 제복을 입지 않고 삼림 내를 자동차로 진입하면 산책나온 주민들의 눈총이 따갑고 고발당한다. 이것이 독일 국민들의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 양상이다. 독일 산림에는 야생동물인 사슴이 많은데 가을의 사슴사냥은 일대 축제이다. 사슴 사냥을 나갈 때에는 삼림관, 사냥애호가들이 모여 나팔을 불며 한마당 축제를 하고 각기 정해진 곳으로 사냥을 나간다. 사냥을 한 후에는 한 곳에 모여 사냥한 동물을 전시하고 고기를 구어 한바탕의 파티를 즐긴다. 사슴을 사냥하는데도 규칙이 있다. 일년에 사냥하는 마리수가 정해져 있고,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 사슴은 사냥해서는 안된다. 사슴의 나이는 뿔의 가지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한다. 사슴을 총으로 쏘려고 겨냥하면서 사슴의 뿔을 보아 대략의 나이를 알아보고 쏜다는 것이다. 또 사슴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지 못하고 상처를 내어 달아나게 했을 때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살하여야 한다.

상처를 내어 추적치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슴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꼭 추적해서 사살하는 것이 사냥꾼의 도의인 것이다. 필자는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삼림관이 환경감시를 하면서 낚시꾼이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크기와 마리수를 조사하는 광경을 본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야생동물 속에 담수어가

포함된다. 물고기도 종류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만 잡아야 한다. 일정크기 이하의 고기는 놔주어야 한다. 바다에서 잡는 전복도 직경이 7인치 이하의 것은 잡을 수 없다. 직경이 7인치이면 17~18cm나 되므로 대단히 큰 전복이다. 이러한 것을 잡아서 요리를 해보면 살이 질겨서 회로 먹기 어렵고 짓쪼아서 요리를 해야 한다. 해안가의 돌맹이를 제치고 보면 전복이 더덕더덕 징그러울 정도로 붙어 있는데 우리네 같으면 작은 것으로 고깃살이 연한 것을 잡고 싶지만 일정 크기 이하의 잡을 수 없으므로 고깃살 맛이 질긴 큰 것을 잡아서 요리해 먹은 경험이 있다. 낚시를 하거나 전복을 잡을 때 면허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필자는 미국 유학시 야외 식물관찰을 하면서 보호종인 양치식물의 잎 뒷면의 포자를 보기 위하여 잎을 하나 따서 관찰하다가 교수님한테 책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양치식물은 보호종이기 때문에 잎을 따서는 안되고 잎 뒷면의 포자를 보기 위하여서는 기어가서 보라는 것이다. 양치식물이 좁고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쭈그리고 기어 올라가야 볼 수 있었다. 선진국의 삼림이나 삼림식물, 야생동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화적 태도인 것이다. 즉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의 양상이다.

### 우리의 삼림 가치관은 '초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근래 삼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삼림은 목재생산과 공공이익을 증진시키는 두가지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항상 경제적 이익에 치중해서 저울질을 하는 경향이 있다. 목재생산이 잘 이루어지면 수원함양, 굴도보존, 환경보존 따위의 이익은 자연적으로 결과되는 것이므로 따로 공익의 가치환산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목재 생산만을 따져서 투자효율을 계산하니 그 수치가 대단히 낮다.

일본에서 근래 계산한 것을 보면 몇 년전에는 약 2% 정도라고 하였는데 최근의 계산치는 1% 정도라고 한다. 투자효율이 낮은 것은 외국에서 천연적으로 생산된 목재가 싸게 많이 수입되어 목재가격이 오르지 않고 국내의 노임과 운반비가 비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동안 노임은 6~7배 올랐는데 목재가격은 1~4배 올랐을 뿐이고 삼림은 험하고 오지에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지 못하여 운반비가 많이 들어 생산자의 수익률이 낮다. 투자 수익률이 낮으므로 정부의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삼림투자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간 임업분야에서는 목재 생산 이외의 간접적 효용가치, 즉 삼림의 공익을 계산해서 공익이 크므로 삼림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에 삼림의 공익을 계산한 결과 물질생산의 12배가 된다고 하여 국회에서 국유림 투자를 줄이려는 것을 막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1년간 목재와 기타 임산물의 총생산액은 약 8천억원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반해 삼림의 1년간 공익은 27조6천억원이 된다고 한다. 이 액수는 국민 총생산액의 12%가 된다는 것이다.

삼림의 물질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1%도 되지 못하지만 공익은 12%가

된다하니 삼림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의 인간문화적 측면을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가 발달되었고 건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같이 삼림의 공익을 어렵게 계산해서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계산해 낸 공익 내용을 보면 맑은 공기 제공 기능의 가치는 8조4천억원, 깨끗한 물 공급기능 7조9천억, 토사유출방지기능 5조8천억, 쾌적한 환경 제공기능 3조5천억, 산사태 방지기능 1조5천억, 야생조수 5천억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도 독일과 같이 공익계산을 해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더라도 국민 스스로가 삼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삼림을 애호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삼림을 모든 국민이 가꾼다는 삼림의 인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글을 맺으면서 나무보호와 산에 갈때 지켜야 할 실천사항을 적어 실천에 옮기도록 함으로써 삼림에 대한 인간문화 창달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수목보호 및 산행질서

- ① 나무에 못을 박거나 철사를 매지 말자
- ② 나뭇가지를 꺾지 말자
- ③ 나무에 글씨를 새기지 말자.
- ④ 삼림 내에서는 정해진 곳 이외에서 취사를 하지 말자
- ⑤ 산에 갈 때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 ⑥ 산에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되가져가자
- ⑦ 입산 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말자
- ⑧ 삼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이는 것보다도 한가지의 실천사항을 지키는 것이 삼림 인간문화의 창달임을 명심하자 ㉞